

NEWS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광주시,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요충지 ‘급부상’

▶1면 ‘광주중앙공원’서 계속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청년들의 모임 장소가 될 이곳은 경관 마운드, 전망휴게소, 정글집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선다. ‘치유의 숲’은 캠퍼지를 비롯해 오두막과 풍욕장 등의 시설이 들어서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제공한다. 테마숲과 별개인 마을숲 11곳도 올해 연말까지 완공해 주민들에게 개방한다.

또 중앙공원 중심부에 있는 ‘품양호수’는 공원의 가치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평가된다. 품양호수 주변에는 독특한 조형미와 예술성을 갖춘 수변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된다. 여기에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차별화 요소들도 마련된다. 시행시는 오는 6월부터 품양호수공원을 폐쇄한 뒤 본격적인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중앙근린공원은 광대한 자연과 특색있는 문화가 최적의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며 “국가도시공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국 최고의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총 9개 공원(10개 지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큰 243만5516㎡ 규모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품양동 일대에 걸쳐 조성된다. 이곳에는 롯데건설이 광주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명품 아파트 브랜드인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들어선다. 오는 2027년 8월 입주 예정이며, 지하 3층~지상 28층 총 39개 동, 전용 84~233㎡ 총 2772세대로 구성된다.

▶1면 ‘시데이터센터’서 계속

광주상의는 또 “AI 반도체, 초거대 언어모델, 자율주행,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 상황을 감안할 때 공공 AI 인프라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중장기적 기반시설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이 병행돼야 AI 기술 주권 확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I데이터센터의 정상적인 운영과 디지털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이번 추경에 운영예산 670억원 전액을 반영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 전체가 활용하는 전략적 기반시설임을 고려, 향후 본예산 및 중장기 재정계획에 안정적으로 반영되도록 ‘국가사업’으로 정당한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팹리스기업 디노티시아·아이닉스·쿠오핀과 협약
광주 주요산업과 융합 기술혁신 등 파급효과 기대
IT기업 케이티엔에프·명인이노…실증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로 국내 유망 팹리스(반도체설계) 기업과 정보기술(IT) 인프라 기업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특히 AI산업의 핵심부품인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들이 광주에 둠지를 틀면서 지역 산업 생태계 확장은 물론 기존 유치기업들과 협력으로 광주시가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의 주요 무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2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팹리스 기업 ㈜디노티시아, ㈜아이닉스, ㈜쿠오핀과 정보기술 인프라 기업인 ㈜케이티엔에프, ㈜명인이노 등 5개 기업과 ‘광주형 인공지능(AI) 비즈니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 정무경(㈜디노티시아 대표이사, 황정현(㈜아이닉스 대표이사, 이상훈(㈜쿠오핀 대표이사, 김상수(㈜케이티엔에프 전무이사, 정진용(㈜명인이노 부사장을 비롯해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강현서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5개 기업은 지역기업들과 협력해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광주시는 인공지능 인프라 지원, 전문 인재 양성, 관련 기관·기업 연계 등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으로 국내 유망 팹리스기업인 ㈜디노티시아, ㈜아이닉스, ㈜쿠오핀은 광주시 팹리스 유치기업에 가세, 총 9개 팹리스 기업이 광주에서 AI기술을 뽐내게 됐다.

이들 기업은 각각 거대언어모델(LLM), 영상신호처리(ISP), 영상전송, 원격관제에 특화된 반도체 개발에 강점이 있어 미래모빌리티, 제조업 등 광주시 주요 산업과 융합해 기술 혁신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보기술(IT) 인프라기업인 ㈜케이



강기정 광주시장이 2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정무경(디노티시아 대표이사, 황정현(아이닉스 대표이사, 이상훈(쿠오핀 대표이사, 김상수(케이티엔에프 전무이사, 정진용(명인이노 부사장과 광주 인공지능·반도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이티엔에프, ㈜명인이노는 기업의 인공지능 모델 학습과 제품 실증에 필요한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질적인 지원군 역할을 한다.

지역 내 인공지능 전용 서버의 공급 범위를 넓히고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 서비스 구동을 위한 최적의 환경 제공으로 광주 인공지능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가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대표들은 “광주는 정부 지원, 인프라, 산업융합, 비용절감, 기관·기업과의 네트워크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 인공지능 중심도시”라며 “광주시 인공지능 기반시설과 인재를 활용해 기술력과 시장경쟁력을 키우고, 지역기업과 협력해 기술과 산업이 연계된 생태계 기반을 만들겠

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에 가족이 되어준 기업들을 환영한다”며 “5개 기업의 기술력이 광주의 인공지능 인프라, 정책과 만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지역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 동구·보성군,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1995헤르츠·그린티모시레…행안부 공모 최대 6억 지원

광주 동구와 보성군의 청년 단체가 스스로 마을을 만들며 지역 정착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해 최종 12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47개 청년단체가 지원했으며, 서면심사에서 36개 단체를 선발한 후 현지실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2곳의 단체를 선정했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 동구 1995헤르츠(HZ), 전남 보성군 그린티모시레가 전국 12곳 단체에 포함됐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공간 조성 등을 청년이 직접 기획·운영해 청년이 모이는 마을을 만드는 국비 지원사업이다. 선정된 청년 단체에는 3년간 최대 6억원을 지원한다.

광주 동구의 ‘1995헤르츠(HZ)’는 광주 동구 서남동 인쇄거리를 중심으로 청년의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서남예술촌’이란 청년마을을 통해 서남동 인쇄거리를 중심으로 한 청년 예술인의 마을, 인쇄 폐기를 활용 예술작품 창작, 인쇄 기술과 지역 문화를 결합한 아트 상품을 제작한다.

인문도시 광주 동구에 맞춰 중고도서 판매 프로젝트 ‘일시적인 한 근 서점’과 로컬 아트 팝업스토어 ‘인사이트 오브 서남동’도 진행한다.

지역 청년의 삶과 이야기도 널리 알리고, 청년 단체와 기업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1995헤르츠(HZ)는 지난 2022년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계림동 광주금수장소에서 작가미술장터를 개최했다. 청년 예술인은 작가미술장터를 계기로 미술시장 진입의 기회를 얻었다.

이후 2022년 11월17일부터 26일까지

산수미술관에서 지역 청년예술인(기획자, 문화연구자, 작가)과 함께 무등산을 주제로 무등산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보성의 ‘그린티모시레’는 지역 특산물인 녹차의 무한변신을 시도한다. 차를 활용한 한식, 양식, 디저트 등 식품을 개발하며 녹차 밭에서 직접 녹차를 수확하고 나만의 티를 만드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선정된 청년마을은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며,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 대상 권역별 전문가 자문, 성과공유회 등을 진행해 청년마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올해 공모에 147개의 청년단체가 지원한 만큼 뜨거운 관심 속에서 12곳의 청년마을을 선정하게 됐다”며 “청년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이들의 열정이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가난한 자의 빛’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바티칸 “전생을 주님·교회 섬기는 데 헌신”

2013년부터 12년간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어난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88세로 선종했다고 교황청이 발표했다.

교황청 공무처장인 케빈 페렐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아침 7시 35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발표했다.

페렐 추기경은 “그는 삶의 전체를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헌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앙, 용기, 보편적 사랑을 갖고 복음의 가치를 살아가라고 우리를 가르쳤다”며 “그는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과 가장 소외된 이들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심각한 폐렴 때문에 장기간 입원했다가 회복해 교황청으로 돌아온 뒤 활동을 재개하고 있었다.

그는 전날 부활절 대축일에 성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을 만나고 부활



절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 갑작스레 선종 소식이 전해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는 고인의 생전 뜻에 따라 간소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건강상의 문제로 자진 사임한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이어 제26대 교황으로 선출됐다.

보수적이며 전통적이었던 베네딕토 16세와 진보적이며 개방적인 프란치스코의 관계는 2019년 ‘두 교황’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차오름 (유) 차오름피앤디
CHAORUM Planning & Development Co., Ltd.

A1 전라남도 영암읍 영암읍 군청로 3, 2층
A2 광주광역시 북구 침단연신로 91번길 44, 3층 301호
Tel. 062-710-5758 Fax. 062-710-5759
E-mail. corpdn@naver.com

- **농어촌지역개발** 타당성 분석, 예비계획, 기본계획, 지역역량강화
- **측량업** 공공측량,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드론측량, GIS
- **지하수관련**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이용개발시공
- **시설물안전진단** 교량 및 터널
- **종합디자인**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리플렛·포장패키지·스토리북·사진첩·조감도 제작
- **엔지니어링사업** 토목설계(도로 및 공항·상하수도·토질 및 지질·구조), 도시계획(단지계획·지구단위계획), 감리